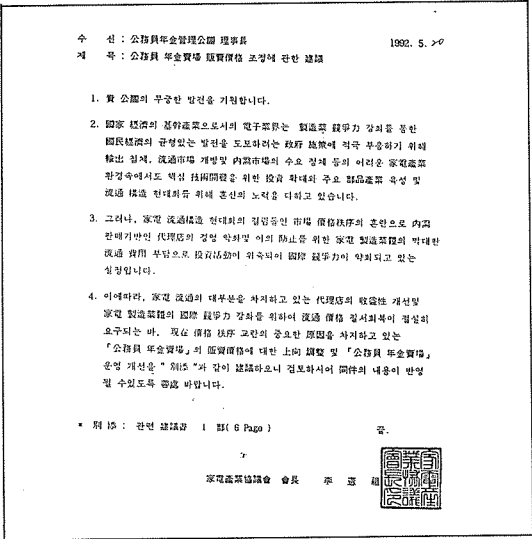


# 공무원 연금매장 판매가격 조정에 관한 건의

본고는 '92년 5월 20일 본회 가전산업협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한 내용임



의 100%공급)  
- 연금매장에서는 공무원에 한하여 공장도가  
격의 104%로 판매한다.

- 일반시중 가격보다 2~4%정도 낮은 판매  
가격이며, 판매이익금은 공무원 연금기  
금으로 흡수관리
- 가전 제조업체에서는 판매대행 대리점에  
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배달, 인건비 등)  
지원해 주고 있다.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직영매장 현황
- 전국7개소 매장: 서울 5개소, 지방 2개소
- 개포사업소, 상록회관, 상계사업소, 제2차  
종합청사 후생관, 고덕사업소, 대구사업소,  
전주사업소

## 1. 건의배경

- 1) 공무원 연금매장 운영현황
- 운영목적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근거)
- 연금매장 운영방법 (가전제품)
- 가전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형태로 운영한  
다.
- 가전 제조업체에서 판매대행 대리점을  
선정하여 상품을 공급한다. (공장도가격

- [참고]
- <\* 외국의 경우>
  - 일 본  
국가(지방) 공무원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  
으나 가전제품은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다.
  - 양복, 구두, 침대, 옷장 등을 공무원 카드  
를 소지한 공무원이 지정점에서 구입하고  
있다.
  - 미 국  
- 군납(PX)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대상으로

만 운영되는 매장은 없다.

- 미국의 문화특성상 특정계층에만 국한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차별대우로 인식되어 이를 금하고 있다.

## 2) 연금매장 운영상의 문제점

### ○ 현재 운영상 문제점

- 공무원 연금매장의 운영취지와는 달리 연금매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
- 공무원 신분증 및 GP카드 소지자에 한해 판매해야 한다.
-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가 없어 동일한 제품을 여러번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에게 유출된다.
- 이러한 연금매장 구매가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정부기관 산하 공무원 기관매점(전국 100여개) 판매가격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 기관매점에서 일반 소비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염가로 판매하고 있어 가전유통 가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 ○ 파급영향

-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사이버 연금매장이 전국적으로 난립 확대되고 있는 추세(전국 약 200개소)이며, 이로 인하여 가전제품 대리점의 대부분이 자구책으로 '공무원 연금매장 가격판매'라는 간판을 설치, 염가로 판매하고 있어 대리점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 공무원 연금매장 가격(공장도 가격의 104%)의 판매로는 대리점 손익을 맞출수 없는 실정이다.
- 최소한 공장도 가격의 108%~110% 판매는 이루어져야 한다.
- 결론적으로 공무원 연금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이 전체 가전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어 가전내수 판매기반인 대리점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 2. 가전업계 현황 및 문제점

### 1) 가전대리점 경영악화

- 가격질서 혼란으로 인한 판매가 하락으로 인해 가전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대리점이탈, 포기급증, 내수판매 기반의 붕괴위험성, 국민경제 위협

가전대리점 수익성 추이

[단위 : %]

|         | '89  | '90  | '91  |
|---------|------|------|------|
| 매출 총이익율 | 10.0 | 8.8  | 8.0  |
| 판매 관리비율 | 10.5 | 9.6  | 9.5  |
| 영업 이익율  | -0.5 | -0.8 | -1.5 |

\* 가전 3사 전체 대리점 평균치임.

\*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가전대리점 포기 및 이탈 추이

[단위 : 개]

|                | '89 | '90     | '91      |
|----------------|-----|---------|----------|
| 사고, 정리 대리점     | 152 | 350     | 540      |
| 수입 가전제품 취급 점포수 | -   | 300-400 | 900-1000 |

\* 가전 3사 총 대리점수 (4,300여개)의 12.5%수준임.

### 2) 가전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 내수판매 기반인 대리점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전제조업체가 막대한 유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리점 이익이 대리점 자체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지 못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손익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대리점 지원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전제조업체의 지원금 추이

[단위 : 억원]

|  | '89   | '90   | '91   |
|--|-------|-------|-------|
|  | 1,500 | 2,100 | 2,900 |

\* 대리점 지원금 : 판매장려금, 판촉비, 디스카운트, 수수료 등

이같은 유통가격 질서혼란으로 인한 유통비용의 가중 및 어려운 가전시장 환경변화(수출침체, 유통개방 및 내수시장의 수요정체)로 인해 가전 제조업체의 이익율이 1%선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설비투자 등의 신규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순이익률 추이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 '90  |      |      |      | '91  |      |      |        |
|------|------|------|------|------|------|------|------|--------|
|      | G/S  | S/S  | D/W  | 松F   | G/S  | S/S  | D/W  | 松F     |
| 순 이익 | 337  | 730  | 129  | 7697 | 185  | 686  | 136  | 9,199& |
| 순이익률 | 1.1% | 1.6% | 1.0% | 3.4% | 0.5% | 1.3% | 0.9% | 3.3%   |

또 한국은 12월말 결산, 松下는 3월말 결산자료임.

3. 건의사항

1) 건의요지

내수 판매기반의 재구축 및 가전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가격 질서회복을 통한 대리점 수익성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경영혁신 등을 통한 가전 제조업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공무원 연금매장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코자 한다.

2) 세부 건의내용

가) 배달비를 고려한 판매가격 상향 조정

배달비를 고려한 판매가격 상향 조정

| 구 분       | 현 행          | 조 정                | 비 고                           |
|-----------|--------------|--------------------|-------------------------------|
| 연금매장 판매가격 | 공장도 가격의 104% | 107%(104% +배달료 3%) | 4%:연금관리공단 귀속<br>3%:대리점 운반비 총당 |

- 연금매장에서의 판매이익의 4%는 연금관리공단에 전액 귀속되고 판매대행 대리점의 판매 부대비용(공장도가의 4%수준)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연금매장 판매가격을 107%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배달료 3%는 판매대행 대리점에 지급한다.

나) 공무원 연금매장 운영개선

- '공무원 연금매장' 이용자 규제강화한다.
  - 철저한 신분확인 및 GP카드를 이용한다.
- 1인 구매한도 제한한다. (쿠폰제 실시)
  - 각제품별 耐久년한을 고려하여 쿠폰제 도입, 시행 (군 PX공급제품은 쿠폰제 실시에 의해 시장상황에 영향적음)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무원 매장'을 축소운영한다.
- 공공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에 어긋나게 연금매장 운영시 행정지도 및 처벌을 강화한다.
- 불법 사이버 연금매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